

걷기 좋은 가을엔 '광양아트인서리로' 걸어요

전남도립미술관~인동숲~인서리공원~광양역사문화관 잇는 문화예술의 모세혈관

풀잎마다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를 지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추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여행자들의 잠들었던 걷기 본능을 깨우고 있다.

광양시가 걷기 좋은 계절, 오래된 골목의 정취를 느끼며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실 수 있는 원도심의 '광양아트인서리로'를 추천해 주목받고 있다.

광양아트인서리로는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인동숲, 인서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등 좁다란 골목을 따라 형성된 문화플랫폼들을 잇는 문화예술의 모세혈관이다.

광양예술창고 건너편 대형 담장 벽화를 시작으로 인동숲을 지나면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이 발현된 20여 점의 예술 작품들이 광양동초등학교 담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어 청년 작가들의 발칙한 상상력이 뿜어낸 벽화 헤르메스, 스타벅스 등



과 매들이, 동백 등 광양의 상징물들이 담장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두터운 마티에르로 표현되었다.

벽화 중간중간에 원형을 보존한 정겨운 돌담과 담장 밖으로 고개를 길게 뻗은 고목들이 마치 침표처럼 등장해 켜켜이 쌓인 골목의 오랜 시간과 스토리를 남기시 들려준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파고라, 스트

리트 퍼니처, 포켓갤러리 등의 이색적인 쉼터와 아트로드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벽화 지도가 두벽이 여행자를 반긴다.

아트로드 벽화 옆에는 갤러리, 카페, 아트샵에 스테이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플랫폼인 인서리공원이 있고, 여행자의 쉼터 남문라운지가 곧바로 이어진다.

아트인서리로의 끝에는 광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이 있고 마당 한편에는 정겨운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아트인서리로는 광양역사문화관에서 마침표를 찍지만 200여 미터만 가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가 독특한 아우라로 방문객을 기다린다.

이런주 관광과장은 "광양아트인서리로는 단순히 거닐거나 이동하는 골목의 기능을 넘어 자체가 문화예술 공간이자,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등의 문화플랫폼들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며 "걷기 좋은 가을, 그동안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실내에 갇혀 있던 몸과 마음을 일으켜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광양인서리아트로드를 걸으며 가을의 낭만과 감수성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미래를 향한 그들의 손길과 숨결

국립남도국악원, 9월 20일 기획공연 차세대 명인전 2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기획공연 차세대 명인전 2(전통의 숨결)을 선보인다.

차세대 명인전은 작년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젊은 예인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재기획한 공연이다.

예술적 기량 및 경쟁력을 갖춘 젊은 예술인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출연자들이 공연 구성부터 출연까지 하나하나 만들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용과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를 만나볼 수 있으며, 총 4명의 차세대 명인이 출연하여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제34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 2020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악서정제> 발매, 현재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강의 초빙교수와 국악관현악단 코리아즌 단장을 맡고 있는 이예원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로 시작하여, 제18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최우수상(대통령상), 제49회 동아무용콩쿠르 일반 전통 남자 부문 은상,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 일반부 차상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한 노하늘의 <곡수호류 장한가>와 <이매방류 승무>를 선보인다.

이어서 제16회 온나라전통춤경연대회 금상, 제19회 무안전국국악대전 대상 수상한 황윤지의 <한영숙류 살풀이>와 <한영숙류 태평무>로 무대를 꾸미며, 마지막으로 전국 국악 경연대회 대상, 2020 서울 전국국악대전 대상, MBC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 장원, 대한민국 빛고를 기약대전 명인부 종합대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는 영동 난계국악단 소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현아의 <육자배기>와 <흥타령>으로 공연의 매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교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상반기 공연장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부터 공연장을 재개관하여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국악으로 행복한 열린 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강진군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슬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김희순 작가 초청전 '화조-채집 : Garden-Gathering'을 개최한다. 2층 갤러리코어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민화의 대표적인 제재 중 하나인 '화조도'를 모티브로 한 김희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화조도 속 주요 도상인 꽃과 새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자연물이지만, 늘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 김희순 작가는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며 놓치기 쉬운, 그러나 더없이 소중한 아름다운 삶의 조각들을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의 화조도 소품에 담아낸다. 특히 '화조-채집 1'과 '화조-채집 2'는

한국민화뮤지엄, 김희순 작가 초청전 개최

'화조-채집' 찻나의 조각 모아 그려낸 일상 속의 아름다움

25cm×25cm 크기의 서로 다른 화조도 24점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각 캔버스의 높낮이가 달라 독특한 입체감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김희순 작가는 현재 경인교대 교육원 민화 강사로 활동 중이며,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민화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작가는 한국민화뮤지엄의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이 주최하는 '전국민화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선민화박물관의 연례 전시인 '민화의 비상'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

다. 맞은편 기획전시실에서는 '2025 대한민국민화대전 수상작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열린 '제11회 대한민국민화대전'에서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일반부와 학생부 작품 24점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전통 민화의 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전시 관람 및 기타 문의는 한국민화뮤지엄(061-433-9770) 또는 인스타

화조_채집



그램 DM(@minhwamuseum)으로 가능합니다. 강진/손경설 기자

가을, 인문학 향기와 선율 가득한 순천시립연향도서관

김범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초청 강연 및 클래식 공연 등 풍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인문학 강연과 클래식 공연을 연향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양상블 아토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엄마의 음악 편지>'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

악'을 콘셉트로,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차이코프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지브리 OST 메들리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7시에는 연향도서관 지하극장 '연'에서 시민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열린다. 유튜브 채널 <범준에 물리다>를 운영하며 과학 대

중화에 앞장서 온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가 '우주와 인간'을 주제로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20일 오후 3시에는 <청소년 인문학 학교>가 운영된다. 순천 출신의 양지열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기자와 법률가, 방

송인으로서 법과 사회 현안을 대중적 언어로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의미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인문학적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도서관에서 마련한 인문학 강연과 공연을 통해 지적 성장과 정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문학 강연 및 공연 참여 신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suncheon.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립연향도서관(061-749-8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타나인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